

더 나은 직업·환경·교육 찾아...광주 인구 지속 유출

20대 수도권으로 순유출 많아 청년 고용 대책 시급
광주시, AI·미래차 중심 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 나서
정부 국정과제에 '광주AI중심도시' 넣고 예산 지원을

광주에서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보다 많은 '순유출'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직업'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없는 탓에 '탈(脫) 광주'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과 제과과 정주환경 조성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AI미래산업 등 첨단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5일 광주시 '2025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시 주요 인구 이동을 분석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순유출 이유는 직업, 자연환경, 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순 이동인구(전입-전출)은 모두 순유출(2020년 6083명, 2021년 5883명, 2022년 7642명, 2023년 9017명, 2024년 7962명)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광주지역 순유출은 2023년보다 감소했지만, 청년층(19~39세) 순유출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청년 순유출인구는 3317명으로 전체 순유출 중 54.5%를 차지했다. 2021년에는 2537명으로 43.11%로 감소했지만, 2022년 4279명으로 56%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3년 청년 순유출 인구는 6387명으로 70.8%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6005명으로 청년 순유출 인구수는 줄었지만, 전체 순유출 중 청년층 비중은 75.4%를 기록했다.

유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으로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 순유출 인구(7962명) 중 수도권(5885명), 충청권(1491명) 유출이 92.6%를 차지했다.

2022년까지 전남·북 인접 도시에서 광주로 인구가 유입됐지만, 이마저도 2023년부터 순유출로 돌아섰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에 인구가 유입(2925명)되는 이유로는 가족(1734명), 주거환경(703명), 주택(488명) 순의 사유였다.

반면 직업(8606명), 자연환경(1170명), 교육(810명) 순의 이유로 1만887명이 광주를 떠났다.

직업을 이유로 광주를 떠난 인구가 2020년 6832명이었다가 2021년 6691명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7777명→2023년 8499명→2024년 860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 때문에 광주를 떠나는 인구는 2020년 977명, 2021년 629명, 2022년 609명, 2023년 817명, 2024년 810명으로 600~9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은 2023년도까지 순유출의 이유로 꺾였지만, 지난해 순유입 요소로 전환됐다.

광주로 인구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이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세(2020년 3232명→2022년 1950명→2024년 1734명)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AI·미래차 중심 미래산업 육성과 창업 지원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인재양성과 청년 자립 기반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AI중심도시를 조성해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광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행복한 육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통합 돌봄 강화 계획도 제시했다.

하지만 AI미래산업을 중심으로 키우는 데는 정책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오주섭 광주 경제발전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힘든 상황"이라면서 "여기에 광주의 역점사업인 AI의 경우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실한 지원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는 광주공약으로 내세운 광주 AI중심도시 조성을 국정과제에 집어 넣고 구체적 예산과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AI산업은 집적이 중요한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에 대한 배분 없이 광주로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광주·전남 인사들 새 정부에서 '약진'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김현중 안보실 1차장
오현주 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선임

고졸 출신 송기호(광주제일고) 변호사가 이재명 정부의 신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으로 임명됐다.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나주·조대여고) 외 교부 주교황정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되고,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중(영광·해통고)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선임됐다.

또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교장이 낙점됐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 실장은 13일 공식 발령을 받고 대통령실로 출근했다. 그는 낮 12시 30분 대통령실에서 열린 안보경제 긴급 점검 회의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실에서 송 실장을 보고 "오늘부터 발령 나셨나, 잘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노가다' 자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실장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국민은행에서 일하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으로 장기간 활동했으며 국제통상 관련 저서도 여러 권 펴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를 지역위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법률특보를 지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 송파를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중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임응운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송기호 실장 김현중 차장



오현주 차장 하정우 수석

또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정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정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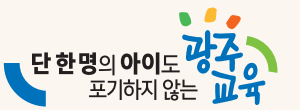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교장이 인선됐다.

강 실장은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함께 지켜야 할 아이들,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학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한
2025 학교폭력 예방
토크 콘서트

일시 2025. 6. 19.(목) 14:00~16:00
장소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북구 능안로 30번길 5)
주제 1부 - 표창원 작가 강연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및 권한 강화'
2부 - 표창원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대상 초·중고교원 및 학생, 학부모, 일반 시민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광주일보